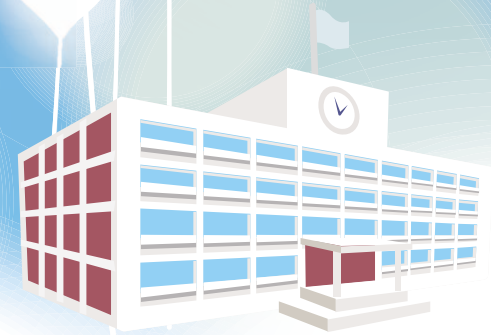


<http://ctl.kookmin.ac.kr>

교수학습 개발센터 사업안내



1 연구 및 개발

-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 1 센터 대외 협력체제 구축
- 1 교과목 및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 1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1 교과목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교수 지원 및 교육

- 1 일반 교수법 및 매체활용 교육
- 1 교수 - 학습 개선을 위한 학과(부)별 세미나/워크숍 지원
- 1 신입교수를 위한 교수법 자료 제작 및 특강
- 1 교수매체 활용 교육 (사이버강좌 저작도구 및 프레젠테이션 활용 교육)
- 1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 1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지원

3 학습 지원 및 교육

- 1 학습법 관련 교육
- 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 1 Study Group 활동 지원
- 1 학습검사 및 상담
- 1 학습클리닉 워크숍
- 1 마이크로티칭 촬영 서비스

4 이러닝 지원 및 교육

- 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 1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교육매체 개발
- 1 교수매체 제작 지원
- 1 교수매체 활용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 1 사이버 강좌 개발 및 평가
- 1 사이버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5 정보제공

- 1 교과과정 /교재개발 관련 책자 제작 및 배포
- 1 교수 - 학습 가이드북, 영어 학습법, 대학생활 안내서 발간
- 1 학습노트 제작 및 배포
- 1 뉴스레터 및 안내 브로슈어 발간
- 1 교수법 관련 자료 대여
- 1 우수 강의 사례 영상 자료 대여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주소 :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국제교육관 A동 203호)
전화 : (02)910-4248, 4448 Fax : (02)910-4249 E-mail : kctl@kookmin.ac.kr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NEWS LETTER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Tel: 02)910-4448 Fax: 02)910-4249 http://ctl.kookmin.ac.kr 발행인: 이성우 발행처: 국민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원칙을 고수하고, 변화에 유연하자.

박 중 기 / 부총장



지식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사회는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 분야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사회이다. 지금 대학은 기술 산업계에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을 가속화 시킨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각종 기관이 주축하는 대학 평가이다.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대학의 평가순위로 나타나고, 번듯한 건물, 새로운 학문분야의 신설과 통 폐합, 정원의 확대, 국제 교류의 활성화 등은 그 부산물이다. 평가 순위가 곧 대학 경쟁력의 잣대로 치부되다 보니, 대학은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대학 경영을 책임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는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책에 목을 매어다는 일이 마치 낙타의 등에 몸을 맡긴 채 신기루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 나가는 사막의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마음의 한켠에 불쑥 불쑥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사물과 사고는 불변의 것은 아니고 변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더욱이 대학은 그 본령이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만큼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역설의 장이 또한 대학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제대로 열심히 배우게 하는 교육의 원리와 원칙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변해야 할 것은 많지만, 인류가 만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주체인 인간이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일은 지구의 질서와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은 그러한 필요성의 중심에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변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게 하는 교육의 원리와 원칙은 지구라는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게 하는 불변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그 원리와 원칙을 발전적으로 개발하여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나아가 참다운 인간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대학 발전의 동력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강규한 교수가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교수와 학습의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워크숍 횟수와 참석인원 등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활동량은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두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당장에 드러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그것에 연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는 교육의 고유한 원리와 원칙을 굳게 잡고, 그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언제나 열려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것이 뒷날 대학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본령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무궁한 매진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CONTENTS

부총장님 인사	01
수업 포트폴리오 과제를 마치며	02
교수 지원 및 교육	04
학습 지원 및 교육	06
북악 캠퍼스 9기 스터디 그룹	
제 9기 스터디그룹 활동 설문 결과	07
제 9기 스터디그룹 활동 사진	08
제 9기 최우수 스터디그룹 활동보고서	09
4차 학습클리닉 워크숍 참여후기	14



2009
08
Vol.9

수업 포트폴리오 (Teaching Portfolio) 과제를 마치며...

심 인 보 / 나노전자물리학과

화씨 110 °F (섭씨 약 43 °C)의 따갑다 못해 뜨거운 아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미국, 서부, 아리조나주 투산 소재) 교정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광경: 교수 연구실이 물려 있는 긴 복도 바닥에 아주 자유롭게 털썩 주저앉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들을 2년의 교환교수 기간에 보아 왔으며, 강의 전/후 교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광경이었음을 알고 난 후 많은 충격속에 북한산 자락의 포근한 국민대학교 교정으로 복귀하였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을 면담시간으로 체크한 나의 교수연구실 앞 스케줄 표를 비롯기라도 하듯 한 학기에 기껏해야 5~6명의 학생들이 나의 연구실을 찾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며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의 그 광경을 그려보곤 한다.



국민대학교에 임용되어 첫 축하모임에서 어느 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30대 교수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40대 교수는 자신이 아는 것만 가르치려 하며, 50대 교수는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며, 60대 교수는 강의 시간에 생각나는 것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말이였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과 타협하여 안주하려들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이셨지만, 본인 자신이 학기가 지날수록 이러한 농담 속에 몰입되어간다는 씁쓸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두꺼운 강의 교재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학생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나의 고정 관념은 그리 오래지 않아 나의 교육관은 무엇이며, 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나의 강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낳게 되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간디의 교육 사상을 나의 교육철학의 멘토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준비 하라는 조벽 교수의 가르침에 동감하며, 고민하던 중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수업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도 2학기 과제에 신청/선정되어 한 학기 동안 나의 교수(teaching) 활동에 대한 개인적 종합관리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업 포트폴리오는 1985년 캐나다 교수협의회에서 Dossier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 후 많은 외국 대학에서 교수 채용 및 승진, 우수강의상 선정시 자료등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수업 포트폴리오는 1985년 캐나다 교수협의회에서 Dossier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 후 많은 외국 대학에서 교수 채용 및 승진, 우수강의상 선정시 자료등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점차 그 활용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시스템이다. 즉, **교수 활동시 활용한 모든 자료 및 교수활동 향상을 위해 노력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본인의 교수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교수활동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수업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교수자의 교육철학, 교수-학습 이력, 선택 강좌의 수업계획서, 강의용 학습자료, 강의 수행시 수업장면, 강의 평가 도구 예시, 수업 평가 결과, 수업 개선 결과, 교수자의 수상경력 및 교실관찰 결과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 2학기, 지금까지 진행되어 던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한 학기의 강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나의 수업 포트폴리오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막막하여 한동안 연구실 창가에 펼쳐진 북한산 가을 단풍 구경으로 그 시간을 대신하였던 것 같다. 몇 주의 강의를 진행한 후 수업 포트폴리오 적용 교과목을 나노전자물리학과 3-4 학년 대상으로 개설된 “3학점의 자성재료학”으로 선정하였다. 나노

전자물리학과는 2004년 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 평가시 학과 발전방안을 기초와 응용에 중점을 둔 나노와 전자의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교과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자성재료학” 교과목은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된 교과목으로 처음으로 강의를 맞게 된 교과 내용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여부를 타진코자하였다.

자신의 교육 철학과 지난 5년간의 교수-학습이력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의 강의보다는 교수의 입장에서 진행된 강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업계획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합정보 시스템의 강의계획서를 이용하였으며, 특별히 교수자와 학습자간 수업 시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강의 수칙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함으로써 강의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강의실 행동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보았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강의 시작 전 해당 교과목에서 기대되어지는 성적을 기록하게 함으로서 강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스스로 계획토록 하였으며, 교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본 강좌는 기초 이론과 응용분야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기에 기초 이론에 바탕을 둔 실험 아이টে임을 하나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기초이론을 응용토록 구성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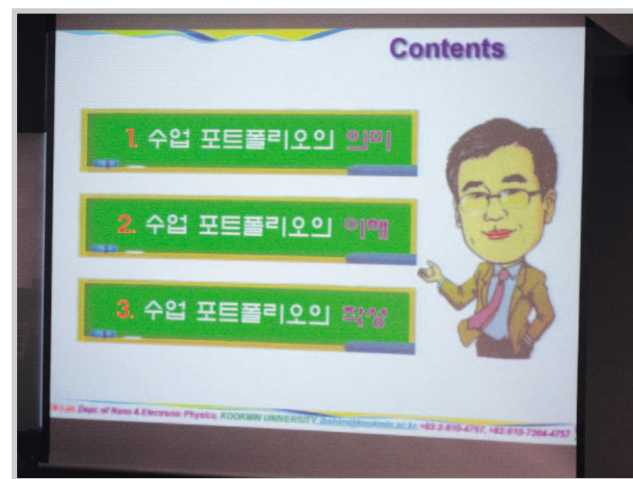
으며, 모든 학습 자료는 강의 시작 3일전 가상대학에 자료를 등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 시간에 인쇄하여 활용토록 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이 강의 장면 동영상 촬영을 통한 전문가 수업 참관기록 아닐까 한다. 나의 강의는 어떨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적절한 자세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등 나의 강의를 직접 대하고 싶은 생각을 가끔 가져보았던 기억이 있다.

전문가 선생님과 촬영 동영상을 분석하며 강의실 공간 활용시 슬라이퍼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가, 레이저 포인터 사용시 산만하게 움직이는 동작, 강의중 손동작과 전달하고자하는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한 장의 ppt에 과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등의 많은 부분을 지적 받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수업 성찰 시스템은 수업 평가 부분이었었던 것 같다. 수업 평가는 강의 전 평가, 강의 중 평가, 강의 후 평가 및 동료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강의 전 평가는 주로 수강 학생들의 선 이수 교과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강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본 선정 과목이 응용과목으로 기초 이론에 대한 선이수가 이루어져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이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인 기초 이론을 첨가하여 진행 할 수 있었다. 학생들로부터 제공된 강의 중/후 평가로부터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는 **강의 계획, 교재 선정, 강의 준비, 강의 성실도, 출석 점**



검, 강의 방식, 전달방식, 평가방식, 관심도, 성취도 및 강의 만족도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이크로 티칭 Micro teaching 서비스를 통한 동료 교수의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역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자료였다.

아리조나 대학교 교정에서 마주했던 복도의 신기한 광경이 부럽고, 과학관 4층의 교수연구실 복도가 적막함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되고, 자신이 아는 것만을 가르치려하는 40대 교수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몸부림으로 참여했던 수업 수포트폴리오 사업을 마무리한지도 벌써 한학기가 지나갔다. 수업 포트폴리오 사업을 종료하고 마주했던 2009년도 1학기에도 많은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제 곧 새로운 학기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자 준비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초·중·고 교사들은 강단에 서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법 수련과정을 거치지만, 대학교 임용 교수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연구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 지식이 출중하다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매 학기 제출하여야하는 연구 업적물에 신경써야하고, 매년 초 여기저기서 다가오는 외부연구비를 수주해야하고, 교수만을 쳐다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관리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예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주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해야만 할 때 나의 곁에 있어 주었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 포트폴리오 사업에 감사드리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향후 국민대학교 교수님들의 우수한 교수 포트폴리오 결과물들을 기대해본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짐해 본다.



교수 지원 및 교육



교수법 관련 교육

교수법 특강 41차 수업포트폴리오 작성의 노하우

- ① 일 시 : 2009. 03. 18. (수) 11:00~12:30
- ① 장 소 : 경상관 317호
- ① 강 사 : 심인보(본교 나노전자물리학과 교수)
- ① 내 용 : 수업포트폴리오 유래, 필요, 사용처, 제작방법, 작성노하우, 사례



교수법 특강 42차 효과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e-learning 수업 운영 전략

- ① 일 시 : 2009. 04. 16. (목) 15:00~17:00
- ① 장 소 : 본부관 401호
- ① 강 사 :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 前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장)
- ① 내 용 :
 - 효과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이러닝 교수-학습 설계 전략
 - 이러닝 수업운영 및 교수-학습 활용 사례
 - 수업 시기별 가이드라인과 전략
 - 이러닝 수업 운영 지원 전략
 - 효과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이러닝 교수-학습 설계 전략



교수법 특강 43차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한 학부생의 창의력 개발

- ① 일 시 : 2009. 05. 07. (목) 11:00~12:30
- ① 장 소 : 본부관 401호
- ① 강 사 : 김재준 (본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 교수)
- ① 내 용 :
 - 재미있게 논문쓰기라는 사제동행세미나 사례보고
 - 청소년 NGO 실증연구
 - 학부생의 학진 등재지 도전 case study
 - 위키피디아에 나타난 소수언어의 생존 노력



교수법 특강 44차 Teaching Subject Matters in English at the University Level

- ① 일 시 : 2009. 05. 21. (목) 15:00~17:00
- ① 장 소 : 본부관 401호
- ① 강 사 : 권오량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 ① 내 용 :
 - 대학의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
 - 대학의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방법





학습 지원 및 교육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8년도 2학기에 이어 2009년도 1학기에도 교수님들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업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수업활동서 혹은 교수이력서)는 최근 수업활동의 자료를 선택하여 조직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향후 수업과 학습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교수자로서의 전문성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2009년도 1학기 수업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은 총 6명의 교수님이 개발 지원을 받으셨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개발 기간 : 2009. 03. 18.(수)~2009. 06. 30.(화) 총 15주
- 초기 모임 : 2009. 03. 18.(수) 초기 모임 및 오리엔테이션
- 중간 모임 : 2009. 04. 28.(화)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중간 점검
- 종결 모임 : 2009. 06. 18.(목) 수업 포트폴리오 결과를 제출 및 개선방안 수립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및 e-러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교수님들은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이러닝을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은 ①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직접 상호작용, ②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토론과 협력 학습 촉진, ③ 분산된 집단 내에서의 사례연구 방법, 프로젝트 수행, ④ 가상집단에 의한 협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⑤ 비정형화된 지식의 창출 및 관리, ⑥ 학습커뮤니티를 통한 집단지식의 형성 및 공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학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총 5명의 교수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닝 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촬영 및 수업분석 서비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의촬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촬영 서비스는 교수님들의 실제 수업장면을 촬영하여 수업행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의촬영 및 분석 서비스와 사이버강의용 또는 보강용 수업촬영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1학기 강의촬영 및 수업분석 서비스는 2명의 교수님이 보강용 수업 촬영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1명의 교수님이 수업보조 자료 촬영 서비스, 2명의 교수님이 강의촬영 및 수업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kookmin.ac.kr>)의 교육 프로그램 → 신청서식에서 강의촬영 및 분석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내방(국제관 A동 203호) 또는 메일(kctl@kookmin.ac.kr)로 신청.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법특강 21차 fair검사를 통해본 나의 집중력과 학습법

- 일 시 : 2009. 04. 03. (금) 14:00~16:50
-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강 사 : 김미라(임상심리사, 학습클리닉 전문가)
- 내 용 : • FAIR 검사 실시 • FAIR 검사의 특징
• 효과적인 대학 공부를 위하여(학습에의 적용)



학습클리닉 워크숍

학습클리닉 워크숍 4차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및 기억전략

- 일 시 : • 1회기 : 2009. 07. 16 (목) 11:00-12:00
• 2회기~6회기 : 2009. 07. 23 (목) 11:00-17:00
- 장 소 : 국제관 A동 202호
- 강 사 : 김미라(학습클리닉 전문가, 임상심리사)
도영미(본 센터 연구원, 임상심리사)
- 회기별 내용 : • 1회기~2회기 : 나의 학습유형과 학습문제 점검하기
• 3회기~6회기 :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전략



마이크로티칭 촬영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각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마이크로 티칭 촬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티칭 촬영서비스를 위해 2실의 수업행동분석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업분석실에는 전자교탁, 태블릿 모니터, 천장형 카메라 1대, 화이트스크린, 빔프로젝트, 이동용 카메라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용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CD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2009-1학기에 수업분석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티칭 촬영을 한 학생은 29명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kookmin.ac.kr>)의 교육 프로그램 → 신청서식에서 마이크로 티칭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화(☎910-4248), 내방(국제관 A동 203호), 메일(kctl@kookmin.ac.kr)로 신청.

학습검사 및 상담 서비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학습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1학기 학습검사 및 상담서비스는 총 118명이 집단 및 개인 학습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복악 캠퍼스 9기 스터디 그룹

2009-1학기 제 9기 스터디 그룹 활동 : 2009. 03. 16(월) ~ 5. 29.(금) (총11주)

초기 41개 그룹 총 171명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중 19개 그룹 82명이 중도 탈락하고 22개팀 89명이 학기말까지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속하여 최종지원을 받았습니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수그룹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수 그룹과 수상자

① 합리적 탐구상

• Adle 언론학과

정보사회와 뉴미디어(지도교수: 김도연) - 김누리, 김유나, 박선

• 동고동락 중어중문학과

경전강독(지도교수: 박종혁) - 박소연, 김신애, 이은진, 이지수

• Angels 경영학부, 기계자동차학부

국제 통상 개론(지도교수: 김재준) - 박춘호, 이재은, 양수영, 박민희

② 주도적 학습상

• 도연님의 아이들 언론정보학부 언론학과, 광고학과

정보사회와 뉴미디어(지도교수: 김도연) - 김도연, 노승화, 류진송, 진혜림

• 복학시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정보사회와 뉴미디어(지도교수: 김도연) - 문명종, 서상원, 이성규, 이상훈

• 프래그머티즘 법학과

증권거래법(지도교수: 김택주) - 김문환, 이신, 전승일

• Topology 수학과

일반위상수학 및 연습(지도교수: 김재룡) - 김민구, 김정배, 김은진, 송윤근

• CDISC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지도교수: 김혁만) - 김순민, 남창우, 이희근, 전상훈, 전성봉

• Amapola 교육학과

국어사(지도교수: 김주필) - 정은혜, 김서희, 박예송, 송연지, 이현정

③ 팀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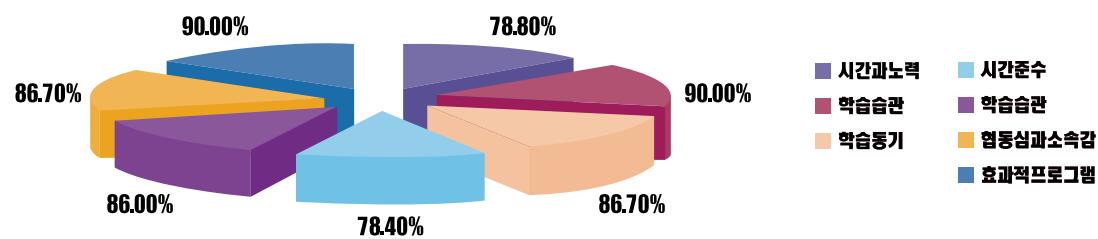
- 동고동락 (박소연) / Angels (박춘호) / 사지원과 아이들 (김태웅) / 프래그머티즘 (김문환)

제 9기 스터디그룹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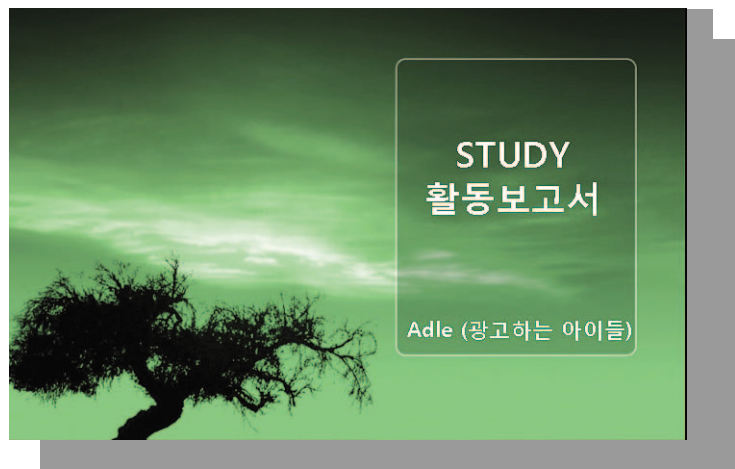
제 9기 스터디그룹 활동 설문 결과

2009-1학기 설문결과



스터디 그룹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가,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학습동기를 고취시켰는가, 스터디 시간을 준수하고 결석하지 않았는가, 능동적인 학습습관을 갖게 되었는가, 또래간의 협동심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는가, 효과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가에 대한 응답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제9기 최우수 스터디그룹 활동보고서



Study Contents

- *강의내용**
 - 정보사회의 도래 및 특징
 - 뉴미디어의 기술, 산업, 수용자
 - 뉴미디어 각론
- *개인과제 - Book Report**
강의 관련 연구서 1권을 통독하여 북 리포트로 정리/발표한다.
- *Team Project**
뉴미디어 관련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발표한다.

Study Process

- *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공강시간 12:00 ~ 1:30 / 3:00 ~ 4:30
 - 장소 : UIT 인터넷 카페
 - 범위 : 모임 전 시간까지 강의 및 필기 내용
- * 스터디 방식**
 1.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 및 필기 정리
 2. 자료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및 토론
 3. 주간학습보고서 작성 및 정리된 필기를 통한 꾸준한 복습
 4. 시험기간에는 주요개념 및 학습목표에 대한 내용 정리
 5. 팀 프로젝트에 대한 토의 및 진행상황 점검

Study Subject

***언론정보학부 언론학 전공강의**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김도연 교수님)

***강의개요 :** 현대사회를 통칭하는 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적, 산업적, 수용자적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보사회와 뉴미디어의 상관관계 및 관련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을 배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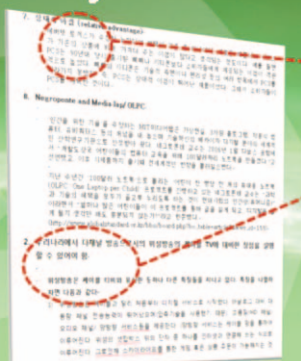
***강의시간 :** 월요일 B교시 / 화요일 D교시

Study Process - 필기 정리

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보충설명이나 예시를 덧붙여 이해를 도움

Study Process - 시험대비 리뷰



**시험범위 내
중요 개념에 대한 정리**

**학습목표 별 정리로
서술형 문제 대비**

Epilogue

연론학 전공 김누리

우리의 3번째 STUDY가 또 한번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 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손에 쥐어진 우리의 노력의 결실들을 보고 있다면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 집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을 내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임을 보면서 함께했다는 것의 소중함을 또 한번 배웠습니다. '나약함'으로 넘어가 쉬운 '익숙함'을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낸 우리 Adle 팀원 서로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다음 학기를 기약합니다. 'We are still masters of our fate!'

연론학 전공 김유나

이번 학기는 다사다난하고 힘든 학기였습니다. 특히나 해야 할 팀 과제나 개인 과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기에 얻는 것도 많고 해야겠죠. 벌써 우리가 하는 3번째 스터디를 마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학기 그리고 그 다음학기, 4학년 마지막까지 스터디를 통해 대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Team Project



휴대폰 SMS를 이용하여
Blog로 전송하는 Social Media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1인 미디어
Micro Blogging Service
"Twitter"

Epilogue

광고학 전공 박선

어느덧 이 멤버로 스터디를 해 온지 1년하고도 한 학기가 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끝나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스터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수업, 팀활동 관련 스터디의 장을 종종 열고 합니다. 스터디라는 이름 아래 우리 팀의 힘워크 또한 최고였습니다. 언니들과 스터디를 계속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서로 응원하며 힘내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광고하는(Advertising) + 아이들, Adle(애들) 화이팅!!

Team Project



Thank you

4차 학습클리닉 워크숍 참여후기...



영어영문학과 20065011 / 김 유리

학기 중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인원 제한 때문이었는지 참여 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고 너무나 안타까웠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길 바랬었는데, 계절학기 수업관련해서 자료를 찾으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학습클리닉 워크숍 공고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워크숍은 2차로 나뉘었는데, 1회기에서는 개인별 학습 종합 진단검사만 한 시간 진행하였고, 2~6회기는 11시부터 5시까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회기에서 진행했던 진단검사에 대한 나의 검사 결과는 **S(관계협동형)95점, E(자신만만형)91점으로 2가지 유형이 상위유형**이었다. 평소에도 팀별로 협동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발표하는 식의 수업을 좋아하는데, 워크숍 진행이 조별로 진행이 되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눠 주신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유형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와닿았고, 정확히 내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놀라웠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학습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전공이 영문학과 이기는 하지만, 교육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조직화 전략에서 범주화, 위계화 그리고 그래픽 구성법 등, 기억전략에서 장소법, 약어법, 단어를 의미있게 만들어서 연결하는 연쇄법 그리고 외국어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어법 등, 읽기전략에서는 SQ3R, S-RUN, 잠깐 언급하셨던 PQ4R

로 토론을 하거나 발표하는 식의 수업을 좋아하는데, 워크숍 진행이 조별로 진행이 되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눠 주신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유형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와닿았고, 정확히 내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놀라웠다.



“ 워크숍 1회기에서는... 개인별 학습 종합 진단검사만 한 시간 진행
2~6회기에서는...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있다 ”

, 신문에서 접할 수 있었던 노트필기 방법들 즉, 코넬노트법, 약어표, 마인드 맵, 트리다이어그램 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이 너무나 유익했던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소에 기껏해야 한두가지 전략만 몇번 시도해 보았을 뿐, 대부분의 전략들은 나에게 그저 이론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직접 예시문을 놓고 전략들을 적용해보는 작업을 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한 어떤 전략이 잘 맞는지 안맞는지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다른 학우분들의 작업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서 다양한 전략활용법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예를들면, 망각의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하는 작업이었는데, 우리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도표화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어떤 조는 정확하면서도 기억하기 쉽게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기도 했던 식이다.

셋째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이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점심 및 먹을거리지원 그리고 노트와 멀티펜 까지 챙겨주셨다. 그렇게 최대한 배려해주신 분위기 때문에 처음 만난 조원들과도 화기애애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2차에 걸쳐서 워크숍 진행되는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김미라, 도영미 선생님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개발을 해나가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후에 진단받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 시험불안에 대한 검사나 다중지능검사 등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